

## 함께하는 복음 묵상

### 루카 1, 1-4; 4,14-21 (2025/1/26, 연중 제3주일)

지난해 12월 24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이 열리며 2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. '희망의 순례자들'이라는 주제로 보내게 되는 희년은 우리가 참된 희망을 되살리며 희망의 이유를 찾아나가는 시간입니다.

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희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갖게 되는 작은 희망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. 세상 안에서의 작은 희망들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발견할 수 있는 희망, 곧 영원한 생명을 향한 참되고 위대한 희망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그분처럼 부활하여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우리의 신앙 여정은 바로 이러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.

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 희망이 선포되는 놀라운 장면에 함께합니다. 성경 속 활자로만 여겨질 수 있었던 이사야서의 바로 그 말씀,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에 함께합니다.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,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나자렛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기쁨의 시간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함께합니다.

### 삶을 들여다 보고 나누기

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해보고 같이 나누시길 권장합니다.

- 1) 희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?
- 2) 이웃과의 관계와 하느님의 관계에서 소홀하고 소원해졌던 것이 있었는지, 그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돌려 놓을지 나누어보세요.